



01. 선행학습, 과연 효과가 있을까?

1.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2.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

0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1.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될까?
2.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입시
3. 선행교육 방지! 학부모의 역할은?

01

선행학습,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학교진도에 맞춘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선행학습을 하는 걸까요?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허와 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선행학습 제대로 이해하기

선행학습이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행학습의 범위와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선행'은 학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봐야 하지요.

☆ 선행학습 규제, 알고 계세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 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이 법과는 관계 없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이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출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9.12.] [법률 제12395호, 2014.3.11.제정]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하는 5가지 이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공부를 한다면 제대로 학습효과를 낼 수 없고 오히려 학습흥미를 떨어뜨리지요. 특히 사교육비의 부담이 큰 데도 선행학습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남들이 다 하니깐!

주위에서 다들 선행학습을 하는데 내 아이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라면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지요?

2 학교에서 하니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했다고 감안해서 쉬운 내용은 생략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며 시험도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윗 학년의 내용을 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3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수업시간에 설명이 빠르거나 배경지식을 생략하고 넘어갈 경우 수업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걱정도 선행학습을 부추깁니다.

4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선생님의 질문에 위축되지 않거나, 전혀 모르는 내용을 처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5 학원에서는 다 선행학습을 하니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원에서 선행진도를 나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공부의 보충을 넘어 이제는 선행학습이 일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2.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의 성적이 더 낮다

남들보다 빠르게 진도를 나간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속도, 내 수준을 알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

대학교 1학년 A군의 고백에 귀 기울여 봅니다. 어릴 때 천재,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던 A군은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었고 경시대회 문제도 쉽게 풀었지요. 초등학교 5학년에 이미 중 3 과정을 선행학습으로 끝냈고, 6학년에는 이미 특목고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A군, 과연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공부에 너무 일찍 질려버렸어요!

Case

중학교부터 점점 성적이 떨어졌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공부가 너무 쉽고 대충 해도 늘 1등이었어요. 2학년 때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위권이었지요. 하지만 3학년 때 외고에 불합격되고 일반고에 진학한 후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반에서 상위권 유지도 힘들었고, 공부도 잘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그날 공부를 다 하지 않으면 밤을 새서라도 끝까지 단어를 외우곤 했지요. 그때는 그게 잘 하는 것이라고 믿고 선행학습을 계속했는데, 아마 그것이 오히려 공부에 일찍 질려버리게 만든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겨우 대학에 들어간 저를 보고, 초등학교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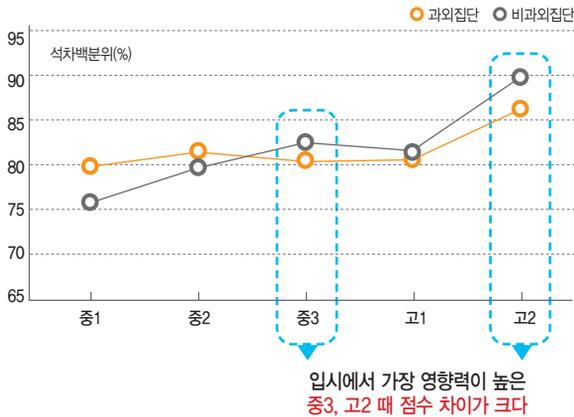


★ 선행학습의 폐해는 중학교 시기에 나타난다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종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2)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상위 30%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집단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 처음에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의 성적이 좋았지만 중2 중반을 지나자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집단의 성적보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입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중3과 고2 때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학습은 공부의 탄력을 잃게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힘들게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진도 뭐지? 아는 거네 뭐.' 해 버리는 거지요. 수업 집중이 무엇인지도, 수업 후의 복습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늘어지면서 공부에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2 중반입니다.



조기 영어교육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부모들이 영어 선행학습에 욕심을 갖습니다. 언어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익혀야 받음도 좋고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앞선 조기교육은 뇌를 자극하기는커녕 뇌 기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 지나친 조기교육은 뇌 발달을 막을 수 있다

뇌는 특정 시기마다 발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특히 0~3세에 과도한 학습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의사소통이나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폐와 같은 정신질환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기 영어교육, 저의 잘못된 욕심이었어요

Case

6개월 간의 미국 유치원 프로그램

아이가 여섯 살 때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 유치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비싼 프로그램이었지만 거부감 없이 영어를 배울 것이라는 기대도 컸지요. 미국 유치원 생활은 즐거웠고 수업 내용도 좋았습니다. 아이가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흉내 낼 때는 오길 잘했다는 확신도 들었지요.

잘못된 교육열의 결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는 발음이나 문장력 모두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괜한 짓을 했다 싶습니다. 유치원 수업은 말보다 동작을 따라 하는 게 더 많고, 문장보다 단어를 반복하는 게 더 많으니 영어를 배운다고 할 수도 없지요. 생각해보니 쓸 데 없는 상술에 말려들었던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 성장 ·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이 중요하다

기억, 추리, 계산, 언어 등 공부를 잘하는 데 필요한 기능은 뇌의 전두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은 발달이 가장 늦게 완성되므로 미취학 아동의 전두엽은 시냅스 형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습은 호기심이나 상상을 촉진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학습이 됩니다.

<뇌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법>

나이	뇌 발달 주요 내용	교육 방법
0~3세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골고루 발달	정서발달을 중심으로 오감학습을 통해 두뇌를 골고루 자극
3~6세	전두엽(종합적인 사고력 등을 조절)이 보다 빠르게 발달	예절교육, 인성교육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습관 형성
6~12세	측두엽(언어·청각 기능)과 두정엽(수학·물리적 사고)이 빠르게 발달	한글과 영어 등 본격적인 언어교육 시작
12세 이후	후두엽(시각 기능)이 많이 발달	외모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인정하는 시기이므로, 자아 성찰 교육 필요

<출처> 서유현(2011), 뇌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법, 사교육정책중점연구 포럼 자료집.

☆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학습량이 너무 많을 경우 뇌는 무리가 오는 걸 피하기 위해 대응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 경험이 많아진 아이들은 학습을 회피하고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행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공부'의 힘을 잃게 됩니다.



0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그 동안 선행학습을 전제로 진행되기도 했던 수업과 시험출제, 이제 **공교육정상화법**과 함께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벗어나고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될까?

[Q & A]로 알아보는 '공교육정상화법'

Q 선행교육이 정확히 뭔가요?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 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Q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한다'는 의미는?

학교는 시·도 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중·고등학교는 1~3학년이 하나의 학년군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한다는 것은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규제 대상의 예는?

-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는 것
-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
-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 등



Q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뭐지요?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입니다. 또한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고사에서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한다면 선행 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Q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선행교육 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합니다. 만약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할 경우 학교에 시정 및 변경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Q 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선행도 안 되나요?

수학경시대회와 같은 교내대회도 각 학년의 배운 내용을 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과학탐구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5, 6학년 수준의 내용을 지도한다면 그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입시

중·고등학교 입시에 적용되는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은 입시에도 적용됩니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을 위해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되도록 합니다.

★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는 각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뛰어넘는 자료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해당 교과목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학교 밖 경시대회, 각종 인증시험, 각종 자격증 등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학교별 설립목적과 특성>

학교 구분	설립목적 및 특성	비고
국제중	국제 분야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특성화중학교)	교과 성적 미반영
국제고	국제 전문인재 양성(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 반영
외국어고	외국어를 능숙한 인재 양성(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 반영
과학고	과학 인재 양성(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수학·과학 교과 반영
자사고	건학 이념에 따라 능력·적성에 맞게 개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반영 교과·비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자율 결정)	서울방식 자사고는 교과 성적 미반영

자기주도학습전형 배제 사항 (15년 기준)

- 어학인증시험 점수(TOEFL, TEPS, TESL, TESEL, PELT, HSK, JLPT 등)
- 능력시험 점수(한국어(국어), 한자 등)
-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 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관리 · 감독을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대학교 입시에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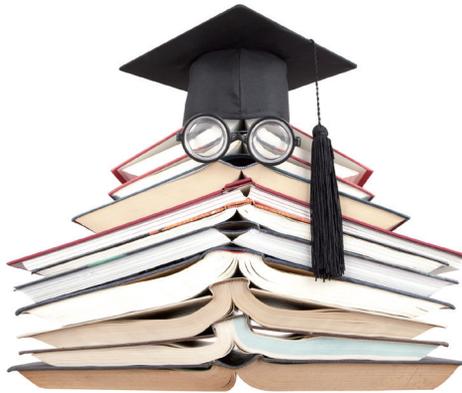
☆ 대학별고사의 범위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는 물론 교직적성 · 인성검사도 포함됩니다.

☆ 매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및 반영

대학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선행 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영향평가의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행교육 방지! 학부모의 역할은?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공교육정상화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학부모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간혹 학부모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다음 학년에 편성된 과목을 미리 보충수업으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게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기본 사항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개수업, 학부모회의, 입시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분위기와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부모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상급학년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에 낸다면 학부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에 상신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 후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 기관에도 적용이 되니까?

-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처럼 강력한 통제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도 적용이 됩니다.
- 제정조례규정에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w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의 흐름, 한눈에 보기>

구분	처리 기관	업무 처리
출제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민원 발생)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 ① 민원인이 학교 처리 결과를 수용할 경우 민원처리 종결 ②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필요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한 후 해당 학교에 처리 방안 통보 ① 민원인이 학교 처리 결과를 수용할 경우 민원처리 종결 ②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개요, 조사 내용 및 검토서 등을 첨부하여 상신. 단,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에 시정·변경 명령 등 조치가 수반 되므로 신중한 결정 필요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청 담당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검토서 등을 내부 검토한 후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 (필요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 실시)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상정 및 처리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위원회→교육감) ② 교육감은 회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③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학교장 징계의결 요구.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행·재정적 제재

